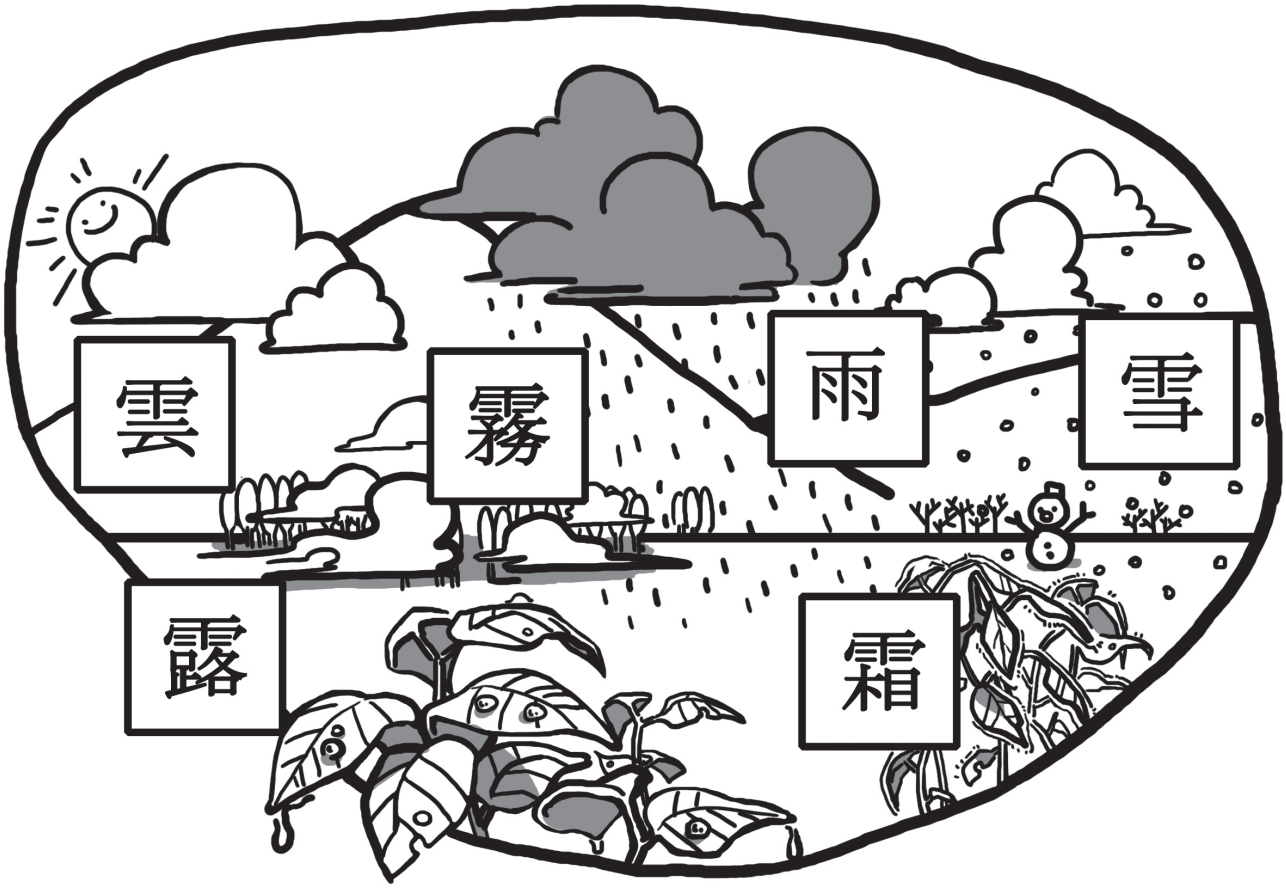
6. 날씨

山과 바다의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기운과 서로 만나면
구름과 안개를 만들고 눈과 비를 내리거나
서리와 이슬을 만들기도 하고 바람과 우레를 만든다.
더운 기운이 증발해 구름을 만들어 비를 내리게 하고
찬 기운이 차갑게 모이면 이슬이 맺히거나 서리가 된다.
봄과 여름에는 비와 이슬이 많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리와 눈이 많으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바람과 우레다. (『계몽편』「지편」)

*기운 : 사물을 생기게 하거나 움직이는 힘 또는 에너지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



본문 해설

옛날에도 사람들은 오늘날처럼 날씨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농사를 짓는 일은 날씨와 관계가 많기 때문에 날씨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했지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계몽편』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학시간에 날씨에 대해 배우는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과 비교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선 구름[雲]·안개[霧]·비[雨]·눈[雪]·서리[霜]·이슬[露]·바람[風]·우레[雷]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네요. 한자를 살펴보면 바람만 제외하고, 모두 비를 뜻하는 '雨(우)'자가 부수로 들어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요. 바로 온갖 날씨를 만드는 것이 비[雨] 곧 물과 관계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 변화가 생긴다고 본 것이지요.

바로 앞의 본문에서 말한 '山과 바다의 기운'이 그것을 가리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수증기에요. '더운 기운이 증발해 구름[雲]을 만들어 비[雨]를 만든다'는 말은 바로 더운 날 수증기가 상승하여 찬 공기와 만나 구름[雲]이 되고 그 구름[雲]에서 비[雨]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찬 기운이 차갑게 모이면 이슬[露]이 맺히거나 서리[霜]가 된다'는 말도 공중의 수증기가 차가운 밤중에 냉각되면서 물체에 엉겨 붙어 물방울이 된 것이 이슬[露]이고, 그 물방울이 언 것이 서리[霜]인데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지요.

또 비[雨]와 이슬[露]은 봄과 여름에, 서리[霜]와 눈[雪]은 가을과 겨울에 내린다는 것은 대체로 그렇다는 뜻이지 언제나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문제는 바람[風]과 우레[雷]인데, '변화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한 말이 솔직한 표현이네요. 바람[風]을 이해하려면 각종 과학 지식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지식은 과학이 발달한 시기에 나온 것이지요. 우레[雷] 또한 전기의 방전현상으로 옛날에는 알 수 없었던 일이었죠.

생각해 볼 문제

1. 앞의 본문을 보고 빈 칸에 서로 관계 되는 말을 넣어 완성시켜 보시오.

기운	온도	계절		날씨	
더운 기운	높다	봄			이슬
찬 기운			겨울	서리	

2. 구름과 눈과 비가 되는 '산과 바다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은 오늘날의 과학 용어로 말하면 각각 무엇일까요? 줄로 이어 보시오.

(1) 산과 바다의 기운 ● ● 찬 공기

(2) 하늘의 기운 ● ● 수증기

3. 다음에 설명하는 자연현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보기〉에서 골라 써 보시오.

〈보기〉 눈 구름 이슬 서리 안개

가. 봄철이나 여름철에 땅 표면의 수증기가 밤이 되면 식어서 풀잎이나 나뭇잎에 물방울이 되어 맺힌 것 (　　)

나. 더운 수증기가 공중으로 올라가 찬 공기를 만나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알갱이가 되어 하늘에 떠 있는 것 (　　)

4. 구름, 비, 이슬, 안개, 서리, 눈 등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① 불　② 물　③ 암석　④ 나무

5. 다음은 무엇의 원리인지 〈보기〉에서 골라 답을 써 보시오.

〈보기〉 비, 이슬, 안개, 구름, 서리, 눈

가. 더운 여름철 찬 음료수 병 밖에 생긴 물방울 : (　　)

나. 꽁꽁 언 아이스크림 포장지 표면에 하얗게 생긴 얇은 얼음 : (　　)

한자 익히기

1.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

뜻	구름	이슬	비	서리	안개	눈	바람
한자	雲	露	雨	霜	霧	雪	風
음	운	로(노)	우	상	무	설	풍

2. 다음 한자어의 음을 써 보시오.

가. 風雨(　　) : 바람과 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나. 雲霧(　　) : 구름과 안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다. 風霜(　　) : 바람과 서리의 뜻. 또는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하는 말

다. 霜雪(　　) : 서리와 눈을 아울러 일컫는 말

3. 앞의 『계몽편』의 내용을 다시 써 보았어요. (　)속에 알맞은 한자의 뜻을 써 넣어 보세요.

山(　　)과 바다의 기운이 올라가 하늘의 기운과 서로 만나면
雲(　　)과 霧(　　)를 만들고 雪(　　)과 雨(　　)를 내리거나
霜(　　)와 露(　　)을 만들기도 하고 風(　　)과 우레를 만든다.
더운 기운이 증발해 雲(　　)을 만들어 雨(　　)를 내리게 하고
찬 기운이 차갑게 모이면 露(　　)이 맺히거나 霜(　　)가 된다.
春(　　)과 夏(　　)에는 雨(　　)와 露(　　)이 많고
秋(　　)과 冬(　　)에는 霜(　　)와 雪(　　)이 많으나
변화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風(　　)과 우레다.

왕상의 효도

『소학』에 나오는 옛 이야기예요.

옛날 중국 삼국시대 말기 위나라에 이름난 효자로 알려진 왕상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그는 일찍이 친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지요. 그녀는 왕상의 아버지께 그를 헐뜯는 고자질을 잘했어요. 그 때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벌로 항상 쇠똥을 치우게 했는데, 그래도 왕상은 불평하지 않고 새어머니와 아버지를 공손하게 잘 섬겼어요.

어느 추운 겨울[冬] 날에 새어머니는 싱싱한 물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왕상은 어머니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江으로 가서 얼음을 깨려고 하는데, 갑자기 얼음이 녹으면서 커다란 잉어 두 마리가 튀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드렸어요.

또 한 번은 새어머니가 참새구이를 먹고 싶다고 했어요. 왕상이 참새를 잡으러 가려는데 마침 수십 마리의 참새 떼가 그의 방으로 날아들지 않겠어요? 그것들을 잡아다가 어머니께 구워 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놀라고 감탄했어요. 모두 왕상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그렇게 된 일이라고 입을 모았지요.

그리고 뜰에 있는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새어머니는 또 그것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였어요. 바람[風]이 불고 큰 비[雨]가 올 때마다 왕상은 열매가 떨어질까 봐 나무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 효성이 지극한 것이 이와 같았어요.

정말로 이런 기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효도를 강조한 옛사람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왕상의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새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나요?

관련 인성 가치	효도